

2010년 8월 2일 보낸 편지입니다.(6,841조회)

희망이란
希望とは

희망이란
希望とは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本来あるともいえず、ないともいえない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それはまるで地の上の道のようにだ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本来地の上には道はない

한 사람이 먼저 가고
一人が先に行って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道を行く人が増えれば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それがまさに道になるだろう

- 루쉰의《고향》중에서 -
- 魯迅の〈故郷〉より -

* 그렇습니다.
* そうです

희망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希望は初めからあったのではありません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생겨나는 것이 희망입니다.
何もないところからも生まれるのが希望です

희망은 희망을 갖는 사람에게만 존재합니다.
希望は希望を持つ人にだけ存在します

희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希望があると信じる人には希望があつて

희망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希望のようなことがないと考える人には

실제로도 희망은 없습니다.
実際にも希望はありません

(2001년 8월1일 앙코르 메일)

2010년 8월 3일 보낸 편지입니다.(1,024조회)

오아시스
オアシス

사하라 사막에서 꼭 오아시스에
サハラ砂漠で、必ずオアシスに

멈추어 쉬어야 할 이유에는 세 가지가 있다.
立ち止まって休まなければならない3つの理由がある

첫째, 쉬면서 기력을 회복해야 한다.
ひとつ、休みながら氣力を回復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둘째, 여정을 되돌아보고 정정해야 할 것은 정정한다.
ふたつ、旅程を眺めて訂正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を訂正する

셋째, 같은 여행길에 오른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みつ、同じ旅行の道を登ったほかの人々と会うことができる

이상하게도 멈추어 쉬고 활력을 되찾으면
不思議なことに、立ち止まって休んで活力を取り戻せば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さらにたくさんのおこなうことができる

더 많이 쉴수록 더 멀리 갈 수 있다.
さらに、たくさん休むほど、さらに遠くに行くことができる

- 스티브 도나휴의《사막을 건너는 여섯가지 방법》중에서 -
- スティーブ・ドナヒューの〈砂漠を渡る6つの方法〉より -

* 오아시스는 쉬는 곳입니다.
* オアシスは、休むところです。

몸이 쉬고 생각이 쉬고 마음이 쉬는 곳...
体を休め、思いを休め、心を休めるところ

때때로 고난과 역경의 모래폭풍이 불어닥치는
時々、苦難と逆境の砂嵐が吹いて近づく

인생의 사막길에도 오아시스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人生の砂漠の道にも、オアシスは必ず必要です。

아직도 갈 길이 먼 저 뜨거운 사막을 무사히 건너기 위해서.
まだ、行く道がと遠い、あの熱い砂漠を無事にわたるために

폭염에 지친 몸을 씻고 희망의 구름을 다시 오르기 위해서.
酷暑で疲れた体を洗って、希望の丘陵をまたのぼるために

(2007년 8월 29일자 앙코르 메일)
(2007年8月29日付アンコールメール)

고난 [苦難]
[명사] 苦難; 心身の苦しみ; 難儀。
역경 [逆境]

[명사] 逆境;思うようにならない境遇;不運な境遇。

모래

[명사] 砂。

폭풍 [暴風]

[명사] 暴風;嵐。

불:다2

<1> [타동사] 口から呼気をだす;吹く。

<2> [타동사] (管楽器などを)吹く。

닥치다

[자동사] 近づく;近寄る;切迫する。

폭염 [暴炎]

[명사] 酷暑。

스티브 도나휴(Steve Donahue)

スティーブ・ドナヒュー(Steve Donahue)

2010년 8월 4일 보낸 편지입니다.(1,051조회)

바라보기만 해도
眺めるだけで

마음 맞는 벗들이 한자리에 모여
気が合う友人たちが、一堂に集まって

허물없이 흥금을 털어놓는 광경은 참 아름답다.
気安く胸のうちを打ち明ける環境はとても美しい

아무 속셈도 없다. 굳이 말이 오갈 것도 없다.
何の下心もない。むりに言葉が行きかうこともない

바라보기만 해도 삶은 기쁨으로 빛나고
眺めるだけで、人生は喜びで輝いて

오가는 눈빛만으로도 즐거움이 넘친다.
行きかう目の輝きだけで楽しさがあふれる

- 정민의《미쳐야 미친다》중에서 -
- ジョンミンの<及ぼすと及ぶ>より -

* 하긴, 행복이 별 게 아닙니다.
* 実は、幸せが別ではありません

마음 맞는 벗들과 한 자리에 모여,
気が合う友達と一堂に集まって

서로 바라만 보아도 좋은 것,
お互い、眺めるだけでよい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それがまさに幸せです

어제처럼, 지금처럼.
昨日のように、今日のように

(2006년 2월 17일자 앙코르 메일)

허물없-이
[부사] へだてなく;氣やすく;心安く;打ち解けて;心おきなく。
흥금 [胸襟]
[명사] 胸襟;胸のうち。
털어-놓다
[타동사] (秘密·悩みなどを)打ち明ける;ぶちまける;洗いざらい話す。
굳이
<1> [부사] 固く;頑固に。
<2> [부사] 強いて;敢えて;無理に。
눈-빛1
<1> [명사] 目の色;目つき;目に現れている気配。
<2> [명사] 目の輝き;眼光。
넘-치다
<1> [자동사] あふれる;満ちあふれる;みなぎる;氾濫する;こぼれる。
<2> [자동사] 過ぎる;余る。

20100804.txt

하기는

[부사] 前述の内容を肯定的に受けて:そう言えば;実のところ;尤も。

2010년 8월 5일 보낸 편지입니다.

파란 하늘, 흰 구름
青い空、白い雲

보들레르처럼 저도 구름을 사랑했지요.
ボードレールのように、私も雲を愛しました

사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愛することが、何もないとき

구름은 내게 와서 나의 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雲は私に来て、私の友になってくれました

내가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私が頼まなくても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そこで私を待っていました。

누군가를 떠나보낸 다음에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誰かを送った後にも、いつかこの世の中を去るときも

내가 보고 싶은 건 바로 너,
私が見たいのはまさに君

파란 하늘과 흰 구름.
青い空、白い雲

- 최영미의 《화가의 우연한 시선》중에서 -
- チェ・ヨンミの〈画家の偶然な視線〉より -

*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고,
* 愛する人をおくって

눈물을 닦으며 하늘을 올려다 봅니다.
涙を拭いて、空を見上げてみます

여전히 파란 하늘, 군데군데 흰구름이 떠 있습니다.
相変わらず、青い空、ところどころに白い雲が浮かんでいます

“힘을 내, 친구야! 변함없는 너의 벗이 되어줄게!”
”力をだぜ、友よ！変わらず君の友になってあげるから！”

흰구름이 친구가 되어 말을 합니다.
白い雲が友達になって話をします。

다시 두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もう一度二つの目に涙があふれます

눈물이 그렇그렇해서 더이상 친구의 얼굴도,
なみだを、なみなみとして、これ以上友達の顔も

흰구름도 보이지 않습니다.
白い雲も見えませんでした。

(2004년 6월 28일자 앙코르 메일)

올리다

<1> [타동사] (上へ)上げる; 挙げる; 揚げる。

<2> [타동사] (勢いなどを)増す; 出す; 上げる

여전히 相變らず

변:함-없:다 [變—]

[형용사] 變わり(が)ない; 変化がない; ひたむきである。

그렁-그렁2

<1> [부사]<하다형 형용사> 液体が器などに溢れんばかりに満ちているさま: なみなみ。

<2> [부사]<하다형 형용사> 目に涙がこぼれんばかりにたまるさま。

2010년 8월 6일 보낸 편지입니다.(3,401조회)

환기
換氣

집 안 공기 깨끗하게 만들기.
家の中の空気をきれいにするために

하루 3번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환기를 시키자.
一日3回以上、1度に30分以上換気をしましょう

환기할 때는 맞바람이 불도록 마주보는 창문과
換気をするときは、向かい風が吹くように、向かい合う窓と

현관문을 모두 열어놓는 게 좋다.
玄関を全てあけるのがよい

장시간 환기가 어렵다면
長い時間の換気が難しければ

2~3시간 간격으로 1~2분씩 환기해도 된다.
2~3時間間隔で、1~2分ずつ換気してもよい

환기는 낮에 하는게 좋다.
換気は、昼にするのがよい

밤에는 도시의 대기오염물질이 땅으로 가라앉으므로
夜は都市の大気汚染物質が地面に浮いているため

오전 10시 이후 오후 9시 이전에 환기를 하자.
午前10時以降、午後9時以前に換気をしよう

- 신근정의《고마워요 에코맘》중에서 -
- シン・クンジョンの〈ありがとうエコの心〉より -

* 집 안뿐만이 아니라
* 家の中だけでなく

마음에도 이따금 환기가 필요합니다.
心にもたまには換気が必要です

굳게 닫힌 일상의 창을 열고 새로운 공기를 마셔야 합니다.
硬く閉ざされた日常の窓を開いて、新しい空気を吸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

산책도 좋고 음악, 여행, 봉사,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散策もよい、音楽、旅行、奉仕、そのどんなこともいいです

주기적으로 해서 차츰 습관으로 만들면 더 좋습니다.
周期的にして、次第に習慣にすればさらによいです

그래야 기분전환도 빨라지고 마음도 맑아집니다.
そうしてこそ、気分転換も早まって、心も清くなります

발상도 전환돼 어제까지 큰 문제였던 것이
発想も転換され、昨日まで大きな問題だったことが

문제가 아닌 것으로 바뀝니다.
問題ではないことに変わります

(2009년 6월3일자 앙코르 메일)

마주-보다

[자동사][타동사] 向かい合う;見合わせる;相對する;面する。

차츰-차츰

[부사] 次第に;漸次(に)。[여린말]차츰차츰

期日がはやまる → はやまる

기일이 빨라지다

2010년 8월 7일 보낸 편지입니다.(3,388조회)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송지영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ソン・ジヨン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현재의 당신
現在のあなた

무슨 소리를 듣고, 무엇을 먹었는가.
どんな声を聞いて、何を食べたのか

그리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했으며,
そして、何を言って、どんな考えをしながら

한 일이 무엇인가.
したことは何か

그것이 바로 현재의 당신이다.
それがまさに現在のあなただ

그리고 당신이 쌓은 업이다.
そして、あなたが積んだ業だ

이와 같이 순간순간 당신 자신이
このように、瞬間瞬間あなた自身が

당신을 만들어 간다.
あなたを作っていく

명심하라.
肝に銘じなさい

- 법정의《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중에서 -
- 法頂の<生きていることは全て幸せだ>より -

* 현재의 나의 모습은
* 現在の私の姿は

순간순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듯합니다.
瞬間瞬間を通じて分か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

순간순간 나를 지켜 나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지만
瞬間瞬間私をまもるといことが、とても難しいが

꾸준히 자신이 꿈꾸고 이루고자 하는 모습을 쌓아 나간다면
根気強く、地震が夢見てかなえようとする姿を積んでいったら

자신도 모르게 성큼 발전되어 있는 자기 모습을
自分も知らないうちに、はっきりと発展している自分の姿を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発見することができると思います。

순간의 내가 나를 만듭니다.
瞬間の私が、私を作ります。

좋은 글 주신 송지영님께
よい文章をくださったソン・ジヨンさまに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感謝と祝賀の挨拶をいたします。

듯-하다

<보조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語尾の‘-ㄴ-은-는-ㄹ-을’に付いて,
客観的な推測を表わす語:…의ようだ;…そうだ;…らしい。

성큼

<1> [부사] (闊歩するさま)의っしのっし;つかつか。

<2> [부사] 動作がよどみなくはっきりしたさま。